

『訥齋集』 책판 교정 사례 연구

A Study on Examples of Editing *Nuljaejib* printing woodblocks

장 원 연 (Jang, won-yeo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2 각수의 기술적 문제 |
| 2. 『눌재집』의 간행 | 4.3 『눌재집』의 책판 교정 방법 |
| 3. 『눌재집』의 교정쇄 교정 | 5. 맺음말 |
| 4. 『눌재집』의 책판 교정 | <참고문헌> |
| 4.1 書寫의 오류 | |

<초 록>

본 연구는 조선 후기 개인문집 간행 시 책판교정에 대하여 朴祥(1474~1530)의 문집 『訥齋集』을 한 사례로 살펴본 것이다. 『눌재집』은 1547년 錦山에서 초간된 후 光山(1694), 完營(1796), 光州(1843)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네 차례 간행되었다. 모두 부임한 지방관이 간행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四刊本 『눌재집』은 1841년 광주 明倫堂에 보관 중이던 『눌재집』 책판이 燒失되어 憲宗이 光州牧使 趙徹永에게 명하여 1843년에 광주에서 간행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사간본 『눌재집』의 교정쇄와 책판, 그리고 완성본을 대조하였다. 교정쇄의 교정 지시에 따라 책판이 교정된 모습과 그 방법을 확인하였고, 인출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확인하여 그 현황을 정리하였다. 『눌재집』의 교정쇄본은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에 16권 6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책판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2004년 충주박씨 문중으로부터 200여판을 기증받아 소장해오고 있다.

인쇄과정에서는 각수의 판각오류를 바로잡는 교정이 주를 이루지만 최종원고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교정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자획의 교정은 탈획을 바로잡는 교정이 전체의 8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눌재집』 책판 교정에서 주목할 점은 字法에 맞지 않는 형태의 글자인 訛字의 수정방법이다. 와자는 각수의 字形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하여 엉뚱한 형태의 글자로 새긴 것인데 탈획 다음으로 많은 교정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이를 통해 자형에 대한 이해는 책판 제작의 각수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要語: 눌재집, 교정쇄, 초견, 교정, 책판, 교정자, 각수

* 청주고인쇄박물관 학예연구사(jwy4075@korea.kr)

접수일: 2017년 6월 12일 최초심사일: 2017년 6월 13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20일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arksang's (1474~1530) set of books as an example about correcting the printed wood-piece while publishing its own set of books in later period of Chosun dynasty. *Nuljaejib* was published four times based in Honam area which it was first published in 1547 in Geumsan, then Gwangsan (1694), Wanyoung (1796), and Gwangju (1843). Every assigned examiners led the publication, and especially, This study's main topic *Nuljaejib* was published in 1843 in Gwangju by Heonjong ordering to Gwangju Moksa Cho Cheulyoung after it was burned in Gwangju Myungyoondang in 1841.

For this study, the proofs of *Nuljaejib* and printed wood and the final copy were contrasted. We confirmed the corrected image of the printed wood and its procedures were confirmed according to the correcting instructions of the proofs, and organized its procedures by figuring out how it was reflected on the printed copy. 16 volumes of 6 books of the book combined with each piece of proofs of *Nuljaejib* is kept at Kyungbuk University Central Library, and 200 printed woods that are donated by Chungju Park family are kept in Gwangju Minicipal Folk Museum.

Although fixing the error of the engraver form a state in the printing proces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are a lot of corrections to be made in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final copy. Also, correcting the missed number of strokes occurred the most with 87%. An important thing to remember when proofreading *Nuljaejib* printed wood is the way of correcting abnormal letters inappropriate with the rule of writing. Abnormal letters occurred due to engraver's lack of understanding of letters which requires second most corrections after correcting the missed number of strokes. From this, it is known that understanding the form of letter is one of the important requirements that engraver of the printed wood must have.

Key words: *Nuljaejib*, Proofs, Once-corrected copy, Correction, Printed Wood, Proofreader, Engraver

1. 머리말

冊板은 서책을 간행하기 위해 원고를 목판에 붙여 새겨낸 판목을 말한다. 책판은 제작 후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인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19세기 말까지 官, 寺刹, 私家 등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개인문집은 간행물뿐만 아니라 원고를 판각해 놓은 책판도 소중히 생각하여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목판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새겨 인쇄하는 목판인쇄를 선호하였다.

일반적으로 문집은 저자 사후에 학연, 지연, 혈연의 관계에 있는 후손, 문인들에 의해 遺稿가 수습되어 간행되었다. 원고는 저자 생전에 정리해 둔 경우도 있으나 드물고, 後人이 유고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고가 정리되면 편집과 교정을 거쳐 최종원고를 확정하여 인쇄에 들어간다. 편집과 교정은 수록할 작품의 선정, 수록 순서, 字句의 교정, 逸失된 내용의 복원, 刪削 등 간행본의 내용과 체제를 확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후인에 의해 편집 교정되어 간행된 문집은 저자의 의도와 다르게 加筆과 刪削이 더해져 후인들의 관점에서 재정리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정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간행 문집은 대량 인쇄되고 널리 배포되어 당대는 물론 후대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 때문에 원고는 완벽하게 편집 교정하여 불완전한 요소를 남기지 말아야 하고, 인쇄 과정에서 빚어지는 판각상의 오류도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 간행을 위해 최종 확정된 원고는 얇은 종이에 淨書한 후 상판하여 판각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인쇄상태를 바로잡는 기술적 교정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유고를 수집하여 편집하고 교정하여 최종원고를 확정하기까지가 학문적 소양이 있는 지식인의 몫이라면, 인쇄교정은 각수의 기술적 능력이 보다 요구되는 단계이다. 이 원고와 인쇄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할수록 인본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이와 같이 문집의 내용과 인쇄물의 품질을 결정하는 校正 행위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개인문집 간행을 이해하는 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특히 원고가 확정된 후 인쇄용 책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수의 판각오류를 바로잡는 데 주목하였다. 아울러 판각 오류의 근본적인 원인이 원고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함께 다루었다.

그간 목판 인쇄물의 교정에 대하여는 교정쇄와 필사본 혹은 완성본을 대조하여 글자와 내용의 변계양상, 교정 부호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었고,¹⁾ 교정쇄를 통해 책판의 수정방법을 유추하는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²⁾ 실제 책판의 교정방법에 대하여는 2010~2011년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 책판조사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³⁾ 이처럼 교정쇄와 책판은 인쇄교정 연구를 위한 가장

1)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제9호(1996), 457-482.

임덕선, “조선후기 문집의 교수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2) 남권희, “古版畫博物館 所藏 五倫行實圖 木板의 飜刻 刊行에 대한 研究,” 『한국의 고판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2005), 270-285.

장원연,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2호(2009), 521-554.

3) 남권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판각 형태와 책판관련 요소 I,” 『동아시아 책판의 가치와 의미』 (한국국학진흥원, 2011), 1-10.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정쇄와 완성본, 그리고 책판이 전하고 있는 朴祥의 『눌재집』을 사례로 조선 후기 개인문집 간행 시의 교정내용과 지시, 특히 책판교정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눌재집』의 교정쇄에 표시된 교정지시 내용과 이에 따라 교정 인쇄된 완성본을 대조하여 유형별 교정 현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에 이르게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실제 『눌재집』 책판을 교정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조선 후기 개인문집 간행을 위한 책판 제작 과정에서 교정자의 역할과 책판의 오류를 바로잡는 각수의 또 다른 기능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눌재집』의 간행

訥齋 朴祥(1474~1530)은 조선 중종조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정치적으로는 기묘사류의 일원이었다. 자는 昌世, 호는 訥齋, 본관은 忠州, 시호는 文簡公, 진사 朴智興의 아들이다. 1501년(연산군 7) 庭試乙科 第五人으로 급제하여 校書館 正字·博士가 되고 累遷하여 全羅道事가 되었다. 1515년(중종 10)에 潭陽府使로 있을 때 순창군수 金淨과 함께 상소하여 중종반정으로 폐위된 단경왕후 愼氏의 복위를 주장하고,⁴⁾ 아울러 박원종 등이 임금을 협박하여 국모를 내쫓은 죄를 바로잡기를 청하다가 중종의 노여움을 사서 烏林驛(나주)으로 유배되었다. 기묘사화(1519) 이후 권신들의 견제를 받아 지방직을 전전하다가, 1529년(중종 24) 병으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듬해 별세하였다. 눌재는 강직한 성품 탓에 권신들의 견제를 받아 외직을 전전한 일생이었으나 문학적인 능력으로 당대 湖陰 鄭士龍이나 후대 芝川 黃廷彥 등에게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되었다. 특히 정조는 눌재의 문학을 그의 생애와 사상을 바탕으로 형식적인 측면까지 熟讀玩味하였으며, 詩經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인이라고 평가하고, 당시 패관잡기에 오염된 文士들의 문체를 순정하게 만들기 위해 그의 문장을 전형으로 제시하여 세상을 교화시키고자 문집 간행을 명하기도 하였다.⁵⁾

① 초간본(1547)

『눌재집』의 초간은 눌재의 동생 六峯 朴祐가 全州府尹으로 있으면서 눌재의 시문을 7권으로

진홍원, 2012), 293-339. ; 당시 연구책임자였던 남권희 교수는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의 6만 여장의 책판을 조사하여 책판 교정 방법 중 보각의 유형을 劃·符號 補刻, 字補刻, 行補刻, 面補刻, 段補刻, 片補刻으로 구분하여 그 원인과 수정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 바 있다.

4) 『己卯錄補遺』 卷上 ‘朴祥傳’.

5) 『正祖實錄』 正祖 19年 乙未.

“敎曰 判付既言之 詩者樂之餘 詩之扶世教 豈云小哉 我國之詩 惟知故校理朴闇 贈吏判朴祥二人而已 闇之詩曾有拾取零金 編成一部者 而文簡之詩 板本刵缺 不堪看閱 令內閣 行會道伯『訥齋集』使之重刻印進.”

산정하여 금산 수령으로 부임한 놀재의 문인 石川 林億齡에게 보내주고, 또 간역을 도와 1547년에 임억령이 錦山 任所에서 간행하였다. 육봉의 서문에 따르면 선생의 저술은 천백여 편에 이른다고 하였으나 현재 수록된 편수는 시가 631수이고 문이 15편이라고 하였다. 이 초간본은 詩 7권과 行狀 1권, 합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전하지 않는다.

② 중간본(1694)

중간본은 1694년(숙종 20) 光山에서 간행되었다. 農巖 金昌協의 발문에 따르면, 文谷 金壽恒이 朗州(靈巖)에 유배되었을 때(1676), 박상의 6대손 朴晶에게 반쯤 남은 全稿本을 얻었고, 이를 朴祐의 산정본과 합쳐, 박우의 산정본을 앞에 두고 전고본의 나머지는 속집 4권으로 편집·繕寫한 다음, 전라감사(湖南方伯) 李師命·李濡에게 간행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689년 己巳換局에 文谷이 화를 당하자 간행이 중지되었다가, 1694년(숙종 20)에 전라감사 崔奎瑞가 간행을 다시 추진하여 마무리하였다.⁶⁾ 이 중간본은 저자의 형 朴禎, 동생 朴祐, 아들 朴敏中, 조카 朴漑의 시문 및 묘갈 등을 附集하여 모두 13권 4책으로 엮고 김창협(金昌協)의 跋을 붙여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③ 삼간본(1796)

삼간본은 1796년⁷⁾에 박상의 大節을 기리기 위해 정조의 명으로 전라감사 徐鼎修가 중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完營에서 간행한 것이다. 정조는 놀재의 문장이 질박하면서도 실용적이며,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당시 경박해진 文士들의 문장을 순정하게 되돌리고 인륜강상의 도리를 고취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놀재집」을 비롯한 朴闇의 「증정읍취현집」 간행을 명하였다. 판목은 光州 校宮 明倫堂에 소장해 두었는데 1841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④ 사간본(1843)

광주 명륜당에 보관 중이던 삼간본의 판목이 소실되자 1843년에 왕이 다시 새길 것을 도모하여 광주목사 趙徹永이 중간하였다.⁸⁾ 그 범례에 조철영이 추가한 내용과 편집 내용을 기록하였는데, 正廟朝의 傳敎, 御製賜祭文, 弘齋全書 日得錄을 제1권에 수록하여 권수로 삼고, 肅廟朝備忘記, 英廟朝傳敎, 正廟朝傳敎, 英廟朝賜祭文, 正廟朝賜祭文, 英廟朝賜祭文簡公文, 正廟朝賜祭金文簡公文及參奉金聖泰疏批를 卷首別編에 수록하였다. 端敬王后復位疏는 舊本에 실리지 않았으나 이때 附錄에 수록하였으며, 또 行狀, 三印臺碑文, 德山書院月峯書院享祀祝文, 諸家敘述을 편집하

6) 「訥齋集」跋(1794).

7) 사간본의 범례에는 1795년에 정조의 명으로 간행하였다고 하였으나, 박은숙은 1899년 연보에 따라 1795년 10월에 시작하여 완성은 1796년 6월에 완성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루관고」에도 1796년에 호남방백에게 간행을 명하였다고 되어 있다.

8) 「訥齋集」凡例.

“正廟乙卯 特命道臣徐鼎修 重刻于完營 藏之光州明倫堂 今上辛丑 板燬 癸卯 亟圖鋟梓 仰副聖祖命刊之至意.”

여 附錄으로 만들었다. 原集과 續集에서 빠진 詩文은 모아서 별집으로 하고, 舊本에 육봉과 선생의 아들 進士公의 유문이 권말에 附集되어 있었는데, 이때 또 부집에 약간편을 첨부하여 16권 6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⁹⁾

⑤ 연보

1864년에는 후손 朴鼎休가 연보 1책을 편성하고 발문을 붙여 家藏하였는데, 이것을 1899년에 박정휴의 아들 朴源大가 10행 20자의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여 四刊本에 合刊하였다.

1899년의 연보는 기존의 사간본과 합한 것이어서 별도의 중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눌재집』은 총 4회 간행된 것으로 본다. 모두 부임한 지방관이 간행을 주도하였다. 초간본은 1547년에 눌재의 문인 임억령이 금산수령으로 부임하자 눌재의 동생 박우의 요청으로 간행되었으며, 1694년 중간본은 호남방백 최규서가 광산에서, 1796년 삼간본은 전라감사 서정수가 완영에서, 1843년 사간본은 광주 목사 조철영이 광주에서 간행하였다. 특히 삼간본은 정조가 눌재의 裔孫을 전라감사로 파견하여 간행하도록 하였으며,¹⁰⁾ 사간본은 헌종의 명으로 간행되었다. 따라서 『눌재집』은 호남출신 인물의 문집을 호남지역에서 그의 문인과 후손이 지방관으로 부임하여 간행한 관관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으로 제수되면 선조의 문집 간행을 직접 주도하거나 혈연·학맥 등의 인맥을 동원하여 지방관으로 부임한 이에게 문집 간행을 부탁하여 지방관 주도의 문집간행이 州府郡縣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었다.¹¹⁾ 국가 또한 역대 명현의 문장을 보존하고자 하는 공적 의도와 부합하여 『눌재집』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눌재집』은 호남 출신 명현의 문집으로 조선 후기까지 증보를 거쳐 주기적으로 간행되었다. 간행의 주체가 관이었다는 점은 지방의 사적인 문집 간행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간행 참여자의 지적 수준과 장인의 솜씨, 소용되는 재료의 확보 등 인적·물적 동원 능력 면에서 사적 간행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관이 주도하여 간행하는 간행물은 중앙에서 직접 교정하여 원고를 내려 주거나 지방의 전현직 관원 또는 지방의 유생이 교정을 담당하였을 만큼 검증된 지식인이 맡았으며, 판각은 관에 소속된 전문 각수나 인근 마을과 사찰 등에서 이름난 각수를 동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소용되는 비용 또한 지방관으로써 융통하기가 보다 수월하였을 것이다. 사간본 『눌재집』의 간행에 대하여는 교정자와 참여한 匠人에 대한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헌종의 명으로 간행된 문집이라면 이상의 특권은 어느 정도 누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9) 『訥齋集』 凡例(1843).

10) 『鏤板考』.

11) 손계영, “地方官의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제15호(2009), 232.

<표 1> 「눌재집」 판본

판 본	편찬자	구 성	간행자	간행지
초간본(1547)	朴祐	1권 2책	錦山守令 林億齡	錦山
중간본(1694)	原集-朴祐 續集-金壽恒 附集-崔奎瑞	13권 4책	湖南方伯 崔奎瑞	光山
삼간본(1796)	原集-朴祐 續集-金壽恒	13권 4책	全羅監司 徐鼎修	完營
사간본(1843)	原集-朴祐 續集-金壽恒	16권 6책	光州牧使 趙徹永	光州
연 보(1899)	朴鼎休	2권 1책	朴源大	光州

3. 「눌재집」의 교정쇄 교정

1841년 광주 명륜당에 보관 중이던 「눌재집」의 책판이 燒失되자 헌종은 광주목사 조철영에게 다시 간행하도록 하여 1843년에 광주에서 간행되었다. 이때 이전 본에서 범례, 권수, 권수별편, 부록을 추가하고 부집을 보완하여 16권 6책으로 편집하였다. 이 과정에 이전 판본에 대한 교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사간본이 중간될 때 기존에 인쇄되어 있었던 頭註와 본문의 내용이 추가 또는 삭제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¹²⁾ 예를 들면 附集 권1 4B2의 난상에 ‘石軒六峯一號’ 여섯 글자를 두주로 추가하여 ‘石軒’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또 본집 권5의 11B4의 난상에 두주로 인쇄되어 있던 ‘天疑无’를 삭제하여 天자로 확정한 것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눌재집」을 간행할 때 初刻한 후 시험 인출한 初見紙가 여섯 책으로 묶여져 전하고 있다. 교정지가 책으로 묶여져 전하는 것은 많지 않다. 특히 「눌재집」처럼 교정쇄 전체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체로 교정지는 그 용도를 다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폐기된다. 종종 책의 표지로 사용되어 낱장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눌재집」 교정쇄본의 표지 또한 「눌재집」의 교정지가 사용되고 있어, 초간 이후 여러 차례 교정이 더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 책의 표지는 모두 續集의 초견지를 사용하였다.¹³⁾ 따라서 교정쇄본의 속집은 초견지가 아니라 최소 2회 이상 교정이 진행된 후의 교정지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속집은 다른 권에 비해 교정지시 사항이 거의 없고 인쇄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12) 삼간본과 대조를 하면 쉽게 알 수 있으나 타기관에서 소장할 확인하지 못하였다.

13) 제1책 표지는 속집 권4 제11장, 제2책에 속집 권2 제63장과 속집 권4 제10장, 제3책 표지에 속집 권2 제63장과 속집 권3 제7장, 제4책에 속집 권4 제7장과 속집 권4 제3장, 제5책에 속집 권3 제7장과 속집 권4 제7장, 제6책에 속집 권4 제3장과 속집 권4 제10장의 교정지가 사용되었다.

교정쇄본은 제책을 위해 아래위를 조금씩 잘라내어¹⁴⁾ 교정지시 내용이 일부 보이지 않지만, 誤刻, 誤字, 내용에 대한 수정까지 꼼꼼하게 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목판본의 교정은 획의 수정이 특히 많이 나타나는데, 『눌재집』에서도 字劃의 교정을 지시한 부분이 매우 많이 확인된다. 자획의 수정은 대부분 각수의 판각기술과 관련되며 획 일부를 깎아버렸거나 획 중간을 끊어 버린 경우이다. 인쇄과정에서의 교정은 각수의 기술적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주를 이루지만 최종원고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교정도 많이 이루어진다. 『눌재집』 교정쇄본에는 오각에 대한 수정뿐만 아니라 오자, 字句의 위치, 내용 추가 및 삭제, 내용수정까지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표기하였다.



<그림 1> 「눌재집」의 교정쇄본(1843)

3.1 교정지시 내용

『눌재집』 교정쇄의 교정지시는 朱沙와 墨書로, 본문 밖 상하 여백에는 수정대상의 글자나 추가할 내용을 기록하고, 본문의 해당 글자에는 우측에 朱書로 縱線을 긋거나 빠진 획과 끊어진 획을 주서로 補劃하였다. 교정지시는 아래처럼 간단한 문구나 표식을 통해 교정 대상과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인지시켜 주는 정도이다.

14) 완성본은 본집 권1 제1장 기준 상변 여백 6.4cm와 하변 여백 4.6cm이나 교정쇄본은 상변 여백이 2.8cm, 하변 여백은 1.2cm이다. 책 크기 또한 25.1×19.2cm로 최종본의 31.3×20.4cm보다 작다.

- ① 문구로 표시: 수정 할 글자가 있는 행의 위쪽 여백에 ‘○當作○’ 혹은 ‘○當改○’, ‘○誤當○’, ‘○○之誤’, ‘○○誤’, ‘○改○’, ‘此語當刪’ 등으로 표기하여 글자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해당 글자에 대한 수정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그대로 둔 경우도 있다. 난상에 頭註의 형태로 인쇄되기도 하는데 ‘○疑○’, ‘○一作○’으로 표기하여 글자에 대한 의문으로 남겨두었다.
- ② 오자 수정: 오자에 동그라미를 하고 옆이나 변란 위아래 여백에 수정할 글자를 기록
- ③ 글자 삭제: 삭제할 글자를 주색으로 덧칠
- ④ 획 수정: 끊어진 획 부분을 붉은 색으로 보충하고, 아래위 여백에 해당글자를 정서
- ⑤ 내용추가: 짧은 문구의 경우는 추가할 위치에 묵서하고, 긴 문장은 난상 여백에 묵서하였으며, 여리가 빠진 경우는 별지에 필사하여 첨부하였다.
- ⑥ 글자 추가: 추가할 위치에 ‘o’를 표시하고 아래위에 추가할 글자 묵서
- ⑦ 교정 취소: 표시했던 교정 글귀에 동그라미 표시

책판의 교정은 원고 단계에서의 정밀한 교정 여부와 각수의 숙련된 기술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대체로 책판은 여러 명의 각수가 분량을 나누어 판을 새기기 때문에 각수에 따라 판각된 책판의 상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눌재집』 책판의 유형별 교정 빈도 또한 조선후기 문집간행의 일반적 모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간행주체가 판아였다는 점은 인적·물적 동원 측면에서 사적 간행물과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눌재집』의 책판 교정 현황 정리는 각수의 판각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이며, 이상의 간행주체가 누구였나를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책판 교정의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눌재집』 책판을 수정하여 완성한 『눌재집』¹⁵⁾(1843)과 교정쇄본¹⁶⁾을 대조하여 교정 내용과 그 빈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교정 내용들은 실제 책판의 교정으로 이어졌다. 하나의 문집이 완성되기 위해 원고뿐만 아니라 책판에 대하여도 얼마나 많은 교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표에서 1~4번은 원고의 오류로 인해 책판을 교정하여야 할 부분을 교정 지시한 것이며, 5~11번은 판각 과정에서 빚어진 각수의 실수를 바로잡은 자획에 대한 교정지시 빈도를 기록한 것이다.

원고교정의 미흡으로 책판을 교정하게 되는 경우는 오자와 내용의 추가와 삭제, 내용 수정이 그 원인으로 『눌재집』에서는 145건이 확인된다. 유형별로 보면, 단순한 오자의 수정이 49건, 내용추가 42건, 내용삭제 38건, 내용수정 16건의 수정을 지시하였다. 이 중에는 교정쇄에 없었던 범례와 발문이 추가되었고, 교전쇄본에 별지로 필사하여 추가된 것이 5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책판으로는 11판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15)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6)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표 2> 「눌재집」의 교정 내용과 빈도

번호	卷次 校正 内容	凡例	卷首	卷首 別編	序	本集 卷1~7	續集 卷1~4	別集	附錄 卷1~2	附集 卷1~2	跋	合
	전체 장수	2	3	4	1	136	138	39	28	39	4	394
1	오자 수정					14		2		33		49
2	내용 추가	1자		1		6	1	1		3		12
		1행 이하		1		16			1	2		20
		1행 이상	1	1	1	2			1	2	1	10
		난상내용								1		1
3	내용 삭제	1자		1			5		1	8		15
		1행 이하		1		3	3		2	8		17
		1행 이상							1			1
		난상내용				2	2	1				5
4	내용 수정			8		1			2	5		16
소 계		1	1	13	1	44	11	4	8	62	1	146
5	탈획 수정			27		499		73		62		661
6	획 수정(訛形)					81		9		4		94
7	획 삭제			1		46		2		4		53
8	획 추가					6		1				7
9	늘어진 획					2		5				7
10	가는 획					6						6
11	짧은 획					2						2
소 계				28		642		90		70		830
합 계		1	1	41	1	686	11	94	8	132	1	976

원고교정은 해당부분의 교정이 전후 내용에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획의 교정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수정작업이며, 교정 여부도 신중하게 결정되었을 것이다. 「눌재집」에서 단문(1행 이하)의 내용 추가 또는 삭제는 본집 권3에 제5장 A면 8행에 “和高宜寧” 아래에 小字로 “雲字彥龍/號霞川”이 첨부되거나 본집 권6에 제5장B면 5행에 “詠橘排律十韻”을 “詠橘”로 수정한 것처럼 소재목의 註釋으로, 물리적으로 앞뒤 글자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문의 내용(1행 이상) 추가로 이후의 내용을 다시 새긴 경우로, 卷首別編 제2~4장은 제1장의 B면 8행부터 “朴文簡公~(監役)”의 5행의 내용이 추가되어 이후 4장까지 판을 다시 새긴 부분도 있다.

각수의 판각 실수를 바로잡는 자획 교정의 유형은 탈획, 획 수정, 획 삭제, 획 추가, 늘어진 획, 획 굵기 수정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중 탈획이 자획 교정에서 80%(661)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와형 글자의 자획 수정이 94건, 추가된 획을 삭제한 것이 53건 확인된다. 자획 교정의

정도는 각수의 판각기술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교정쇄본에서 보면 속집은 5~11번에 해당하는 자획의 교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한 대로 속집의 초견지는 표지 제작에 사용되고, 몇 차례 교정된 책판의 인출지가 다른 권과 함께 제책되었기 때문이다. 표지에 사용된 교정지를 보면, 다른 권과 비슷한 수준의 교정지시가 표기 되어 있다. 때문에 교정빈도는 위 표에서 기록된 것 보다 훨씬 늘어 날 수 있다. 교정쇄본의 속집이 몇 번째 교정지인가는 알 수 없으나 자획의 수정은 한 건도 없는 반면 내용의 추가와 삭제는 11건이나 확인된다. 즉 내용의 수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원고는 인쇄를 시작하기 전에 확정되어야 하지만 인쇄과정에서 몇 번의 교정을 거쳤음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자획을 바로잡는 기술적 교정의 성격과 달리 내용적인 부분은 교정자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등재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필사의 오류로 내용을 누락했거나 추가한 것이 아니라 교정자가 새로운 것을 찾아 고증하고, 보충하는 등의 보다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눌재집」의 책판 교정

「눌재집」은 총 394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책판은 앞뒤 면에 판각이 됴므로 총 197판 정도가 제작된 셈이다.¹⁷⁾ 책판은 광주 松湖影堂¹⁸⁾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4년에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기증되었다. 관판본 문집의 책판이 판서가 아닌 문중이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책판을 보관한 송호영당은 「눌재집」의 저자인 박상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영당이였기 때문에 이곳에 책판을 보관하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책판의 수는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200판¹⁹⁾이었으며, 책판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었다.

문집의 책판은 국학진흥원을 비롯한 비교적 많은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교정쇄와 대조가 가능한 책판은 많지 않다. 교정쇄가 온전히 남아 있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다. 「눌재집」은 교정쇄와 책판, 최종 인쇄본이 모두 전하고 있다. 교정쇄의 교정 지시에 따라 실제 책판이 수정되고 또 이것이 인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일련의 자료들이다. 교정쇄가 남아 있지 않는 책판에서는 인쇄과정에서 먹이 수정된 자획의 틈을 매우고 덮어 버렸기 때문에

17) 모든 책판이 양면 판각이 되었을 경우 197판이 되지만, 한 면만 판각된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판수는 이보다 많다.

18) 눌재 박상과 사암 박순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곳으로 1728년 광주 서창동 절골 마을에 건립되었다.

19) 「눌재집」 책판은 개간 1판, 범례 2판, 권수 2판, 권수별편 3판, 목록권수 2판, 본집 42판, 속집 70판, 별집 19판, 부록 18판, 부집 20판, 발 2판으로 조사되었다. 책판의 크기는(권수별편 제1장 기준) 가로 51.6cm, 세로 48cm(마구리 포함)이며, 인쇄가 되는 광곽을 기준으로 한 크기는 가로 34.3, 세로 20cm(半廣 19.5×16cm)이다.

자세히 살펴지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눌재집』은 책판의 교정양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눌재집』은 왕명으로 간행된 문집임에도 불구하고 판각 수준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책판의 교정도 완벽히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대신에 간편함을 추구하여 인쇄된 글자의 서체도 바르지 않은 것이 많다. 오자라 하더라도 자형이 유사한 경우 전체를 수정하지 않고 일부 획을 억지로 깎고 삽입하여 균형이 맞지 않은 글자로 인쇄된 것이 많다. 또 자획의 수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각수의 판각술이 떨어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원고 단계에서의 편집과 교정이 완전하지 않은 채 최종본으로 확정되어 판각된 경우, 인쇄과정에 서 적게는 한 글자, 많게는 해당 책판 전체를 다시 판각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初刻한 책판은 형태적으로 하나의 책판에 새겨져 있으므로 새로운 내용의 추가와 삭제는 그 분량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때문에 원고의 편집과 교정은 학식과 덕망으로 검증된 지식인이 참여하였고, 특히 왕명으로 간행되는 문집의 경우는 검증된 지식인으로서 인근의 생원·진사를 비롯한 전·현직 관원이 동원되었다.²⁰⁾ 따라서 원고의 완성도는 책판의 교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함께 책판을 교정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書寫의 오류와 각수의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실제 책판을 어떻게 교정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書寫의 오류

최종원고를 목판 붙여 새기기 위해서는 登梓本을 만들어야 하는데, 등재본은 글씨를 잘 쓰는 사람 한 명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오자와 탈자를 비롯한 필사자의 착오에 의한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한다. 『抱朴子』 ‘遐覽’에서도 “책을 세 번 베끼면 魯자가 魚자로 되고, 帝자가 虎자가 된다”고 하여 옮겨 쓰는 과정에서 착오가 쉽게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하였듯이 상관을 위한 정서본도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 서사에 대하여 『大溪集刊役時日記』²¹⁾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문자를 교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워 지금 이 교정본도 여러 번 식견이 높은 사람의 안목을 거쳐 수정·윤색과 교감한 것이 몇 년이 걸렸는지도 모르지만 아직도 독음이 서로 비슷하고 자체가 서로 비슷한 오류가 있거나, 이미 잘못 전해진 것으로 인해 잘못 전한 경우도 있다. 지금 간본을 필사할 때도 항상 이런 점에 눈을 두고 살펴 연마하고 준비하지만, 그래도 혹 살펴지지 못하고 빠뜨린 곳이 있을까 염려하여 집안사람 중에 문자학에 밝거나 깊이 연구한 자를 시켜 돌려보게 한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각하여 인출한 뒤에 銀根²²⁾과 陶陰²³⁾으로 정교하지 못한 것이

20) 장원연, “조선시대 교정기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89.

21) 大溪 李周禎(1750~1818)의 문집 『大溪先生文集』을 이주정의 증손자가 목판으로 간행하면서 그 과정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일기는 1884년 정월부터 이듬해 연말까지 매일의 진행 상황과 경비 등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또 보였다. 옛사람이 말한 ‘먼지를 쓰는 일’이라고 한 것이 진실로 딱 들어맞는 말이다.²⁴⁾

誤書는 곧바로 책판 수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재본 또한 다시 한 번 오탈자를 교정한 후 상판에 사용된다. 등재본에서 확인된 오류는 그 정도에 따라 수정방법도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제1장에서 편을 나눈 제목에 줄이 누락되어 있고, (중략) 그 아래 간간이 빠뜨린 곳이 있기 때문에 글줄을 따라 칼로 오려내고, 그 순서를 바꾸고 풀칠하여 篇帙을 완성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옮기고 고치는 즈음에 쉽게 정밀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다, 또 글자마다 빠뜨려진 경우에는 구마다 칼로 오려 위아래로 바꾸는 작업이 참으로 어려웠다.²⁵⁾

간본²⁶⁾ 15장을 가지고 왔다. (중략) 간혹 빠지고 잘못되고 뒤바뀐 곳이 있었다. 빠진 곳은 칼로 전쪽을 오려내어 차례로 옮겨 내리고, 그 빠진 곳은 메우고, 틀린 부분은 풀칠하여 고치고, 뒤바뀐 부분은 아래에 것을 옮겨 위의 것과 바꾸었다. 이와 같은 종류가 무릇 세 곳이나 되었다.²⁷⁾

서사자의 실수로 빠진 내용 추가, 誤書된 부분의 수정, 아래위 내용이 도치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 등을 기록하면서, 이로 인해 정밀하지 않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오서된 부분을 오려내고 순서를 바꾸어 등재본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는 전부 다시 써야 한다.

서사의 오류는 필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다. 서사 오류의 유형으로는 字形이 유사하여 잘못 쓴 글자, 음과 뜻이 유사하여 잘못 쓴 글자, 脫字, 重寫하여 衍字된 글자, 글자 또는 구절의 위치가 도치된 것, 약자의 사용, 字法을 잃고 획을 추가하거나 빼먹은 형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字形이 유사하여 비슷한 모양의 글자로 誤書한 경우는 西자를 西자로, 己자를 巳로, 義자를 義자로 잘못 쓴 것과 같이 필사자가 쉽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독음과 뜻이 유사한 글자로 잘못 쓴 경우는 曆자가 歷자로 쓴 것과 같은 것이다. 또 필사자가 습관적으로 略字를 사용하기도 하며, 불필요한 획을 추가하거나 생략하여 字形을 변형시키기도 한다. 脫字와 衍字는 전사 과정에 부주의로 같은 글자를 빠뜨리거나 추가한 것이다. 한 두 글자의 오류 외에 여러 단어를 빠뜨리거나 아래위

22) 金根車를 金銀車로 고친 당나라 문장가 한유의 아들이 이런 실수를 저질러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일.

23) 魯魚陶陰 곧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지저르는 잘못.

24) 『대계집간역시일기』 1884년 5월 28일.

“大抵文字讐校之役 難者也 至難且此校本屢經高眼目修潤校勘者 不知幾許年 而猶或有誤於聲相近字相似之處 又或有以訛傳訛者 今於寫本之際 常自在之審察之磨準之 而惟恐其有欠考慮 又使門內之工於字學深於研究者 輪回考覽者 不止一再 而及其登刻印出之後 又見銀根陶陰之未得精□校者有之 古人所謂掃塵之役者 眞實際語也.”

25) 『대계집간역시일기』 1884년 10월 13일.

“第一章分篇題目行見漏 (중략) 其下又間有關漏處 故將欲逐行刀割 易其次序 糊成篇帙 然其移改之際 易有不精之慮 又□□字字見漏者 則逐句刀割 上易下改者 誠亦難矣.”

26) 상판을 위한 정서본.

27) 『대계집간역시일기』 1885년 1월 13일.

“從持刊本十五丈而來 (중략) 間有關誤倒錯之處 闕者刀割 全幅漸次移易 填其闕處 誤者糊而改之 倒錯者移下而易其上 若此類者 凡數三處矣 然細玩其筆.”

순서가 뒤바뀐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많게는 몇 행을 빠뜨리기도 한다. 이처럼 필사 과정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원고와 다르게 필사된 내용은 모두 교정의 대상이다.

4.2 각수의 기술적 문제

정서한 원고는 잘 다듬은 판목에 상판하여 판각을 한다. 여기부터는 각수의 판각술에 따라 인쇄상태가 좌우된다고 할 정도로 각수의 기술적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각수는 서사자의 글씨를 충실히 재현하여 예리한 필획을 잘 살려 일관성과 균형미를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각수는 민간, 사찰, 관아 등에 소속되어 승려, 양인, 천인, 奴 등 다양한 계층의 신분으로 참여하였으며, 직업의 특성상 문자를 깨우친 자로써, 어느 장인보다도 양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²⁸⁾

한 종의 책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각수가 분량을 나누어 판각을 하게 되는데, 각자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미숙한 각수가 새긴 글자에 대한 잦은 오각 수정은 인본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미숙한 초보 각수는 칼의 움직임이 순조롭지 못해 자획을 자주 건드려서 획이 끊지 못하고 획을 끊어지게 하는 경우 많다. 이런 문제로 1859년 『오륜행실도』²⁹⁾의 책판 판각 시에는 전문 각수와 초보 각수의 역할을 나누어, 글자와 그림 등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 각수가 맡아서 판각과 교정을 하고, 이후에 초보 각수가 비교적 쉬운 나머지 부분을 판각하여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³⁰⁾

숙련된 각수의 요건으로는 판각술과 아울러 해박한 글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눌재집』의 경우 참여 각수의 글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빗어진 획 수정에 대한 교정이 많이 확인된다. 각수가 자형을 이해하지 못하여 특이한 형태의 글자로 誤刻한 것이다. 상판용의 登梓本을 정서하는 중에 먹이 번졌거나 등재본을 판목에 뒤집어 붙이는 상판과 판각과정에서 자면의 일부가 훼손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은 자못 다를 것이고, 더욱이 글자를 거꾸로 새기기 때문에 자형의 이해 수준이 판각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훼손된 자획에 대한 확신이 없는 판각은 글자의 형태도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런 사례는 『눌재집』의 본집에만 81건이 확인된다.

교정자는 각수가 초각한 책판을 인출하여 교정을 보는데, 판각의 실수뿐만 아니라 원고 교정 단계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도 재확인한다. 판각의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脫劃, 衍劃, 刀刻, 가는 획, 굵은 획, 늘어진 획, 짧은 획, 와형의 글자를 바로잡을 것을 표시한다. 수정은 校正刻手가 초각한 책판을 교정지시에 따라 바로잡는데, 이들은 일반 각수에 비해 공임을

28)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26-27.

29) 1797년 李秉模 등이 왕명으로 간행한 정리자본 『오륜행실도』를 1859년(철종 10)에 金炳學 등이 왕명으로 내각에서 번각하여 간행하였다. 이때의 교정쇄본 4책이 정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30) 남권희, “古版畫博物館 所藏 五倫行實圖 木板의 飜刻 刊行에 대한 研究,” 『한국의 고판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2005), 270-285.

더 받을 정도로³¹⁾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책판에서 글자를 수정한 사례를 확인하면 일반적인 판각과 다른 또 다른 기술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4.3 「눌재집」의 책판 교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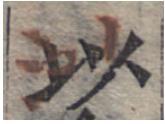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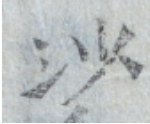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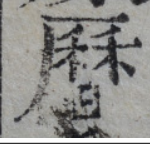
책판의 교정은 크게 판각의 실수로 발생하는 자획에 대한 수정 즉, 脫劃, 衍劃, 가는 획, 굵은 획, 늘어진 획, 짧은 획 등의 수정과 원고 단계의 교정 미흡에 의한 오자, 내용의 추가와 삭제, 내용 변경, 字句의 위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수정은 교정쇄의 수정지시에 따라 각수가 판을 수정한다. 판각의 기술적인 부분의 교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는 교정쇄와 완성본을 비교하면 대략적인 유추는 가능하지만 인쇄에 사용된 책판과 사례를 비교하여 확인하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눌재집」은 교정쇄와 완성본 그리고 책판까지 남아 있어 책판교정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눌재집」에서 탈획 외에 글자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주목할 점은 글자 전체를 깎아내지 않고 가능하면 일부의 획이라도 살려서 모양을 만들려고 한 점이다. 그 방법은 획 일부를 깎아 내거나, 억지로 획을 변형시키거나, 획 추가·삭제, 획 중 일부분만 보각·삽입하는 방식 등이다. 때문에 때로 어색한 字形으로 인쇄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日 ↔ 日’, ‘未 ↔ 木’ 등으로 수정할 경우 획 사이의 간격이 고르지 않게 되고, ‘米 → 光’으로 교정한 경우는 일부는 깎아내고 또 일부는 추가하였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양이 전혀 다른 오자를 제외하고는 글자 전체를 새로 보각해 넣은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4.3.1 誤字 수정

책판의 물리적 교정 관점에서 오자는 형태적으로 字形이 완전히 다른 글자와 비슷한 글자로 나눌 수 있다. 이 둘의 차이가 오자의 수정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오자의 수정은 잘못된 글자를 파내어 제거한 후 다른 나무에 새긴 글자를 파낸 부분에 꼭 물리도록 꽂아 넣어 완성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의 수정방법이고, 자형의 일부 유사성이 있을 때는 획을 보각 삽입하여 수정하는 방식의 빈도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아래 표에서 目자를 日자로 수정한 것을 보면, 目자의 마지막 획을 삭제하고 1획과 2획의 끝 부분을 다듬어 완성하였고, 또 以자에 획을 깎아내고 또 삽입하여 沙자를 만들었으며, 歷자는 曆으로 수정하면서 止자 日자로 억지로 수정하여 자형 다소 엉성하게 인쇄되었다.

31)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퇴계 선생문집 개간시 일기」 6월 21일 “교정각수의 경우도 공임보다 더 받는다고 하여 교정 일수를 계산하여 한 달 치 및 그가 각을 한 3판의 공임을 더 얹어 모두 15냥을 주었다.”

교정쇄	책 판	완성본	수정내용
			目 → 日
『訥齋集』卷1 9A7-7			
			以 → 沙
『訥齋集』卷5 43A4-1			
			歷 → 曆
『訥齋集』卷3 11A5-4			
			鈞 → 勻
『訥齋集』卷5 42A3-6			

<그림 2> 「눌재집」의 誤字 수정 사례

鈞자를勻자로 수정한 것은 「눌재집」 본문에서 한 글자를 통째로 수정한 유일한 사례이다. 附集 권1은 제목의 권차는 「訥齋先生附集卷第五」로 되어 있어서 권1의 28장의 판심의 장차도 모두 一자로 수정하였다.

글자 전체를 수정하는 경우 새로 새긴 활자를 끼워 넣는 방법과 매목 후에 글자를 새기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글자를 새기는 시점에 대한 차이로, 후자는 먼저 나무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아교를 발라 끼워 고정한 후 주변 글자와 높이가 같도록 면을 고르고, 새로 쓴 자본을 붙이거나 종이를 붙인 다음, 글자를 써서 판각하는 방법이다. 「눌재집」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한국국학진흥원 소장의 「謙菴集」 책판의 附錄, 26張에 「眞」자를 수정한 것을 보면, 윗 글자 「遍」의 마지막 획 「丶」의 끝부분이 잘려져 있고, 수정할 글자인 「眞」의 마지막 두 획은 남겨둔 채로 수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위 글자의 획과 보각 글자의 획이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매목 후 종이를 붙이고 글씨를 써서 각을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또 「양계선생문집」 권1 제14張의 問자는 글자의 반만 새로 보각하였다. 이것도 「謙菴集」의 「眞」자 수정과 같은 맥락이다. 이 두 경우 미리 새긴 글자를 끼워 넣는 것은 아래위, 좌우 획과의 정밀한 연결, 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림 3> 기타 誤字 수정 사례

4.3.2 訛形의 글자 수정

訛形字는 字法에 맞지 않는 모양의 글자로, 형태적으로는 원래 글자와 유사성이 많다. 이런 글자는 전체를 다시 새기지 않고 일부 획의 삭제와 보각으로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눌재집』 권4 38A10-7의 納자와 『눌재집』 권5 21A1-10의 輝자 좌변 米와 光이 米로 오각 되어 바로잡았는데, 오각된 좌변 米자 전체를 다시 새기지 않고 일부 획의 삭제와 보각으로 수정하였다. 때문에 인쇄된 글자 또한 다소 어색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글자 전체를 다시 새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으나 판 전체에서 이런 형태의 오각 발생 빈도가 높아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많은 수정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형의 완전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획의 수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눌재집』에서는 이런 사례가 94회나 확인되며, 각수의 字形에 대한 이해도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판각에 이런 사례가 많을수록 인본의 완성도는 떨어지게 된다.

교정체	책판	완성본	수정내용
			米 → 糸
『訥齋集』 卷4 38A10-7			
			米 → 光
『訥齋集』 卷5 21A1-10			
			田 → 日
『訥齋集』 卷5 22B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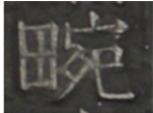
<그림 4> 「눌재집」 訛形의 글자 수정 사례

					
附集 권1 26B2-12(所)	本集 권4 15B8-3(言)	本集 권4 31B7-8(向)	本集 권5 37A3-15(青)	附集 권1 9B9-4(儉)	附集 권1 15A4-6(水)

<그림 5> 기타 「눌재집」 교정쇄의 訛形 글자

4.3.3 탈획 수정

탈획은 책판 제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판각의 오류이다. 「눌재집」에서 탈획에 대한 수정은 661회로, 자획의 전체 교정 내용 중 80%가 이에 해당하고, 그 유형은 획 중간이 刀刻되었거나 획 일부가 깎여 나간 경우이다. 수정은 象嵌法³²⁾을 사용하여 탈획된 부분에 홈을 파서 아래가 좁은 형태의 나무를 조금 너박한 길이로 만들어 홈에 삽입한 후 이웃한 획의 굵기와 높이를 고려하여 다듬어서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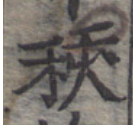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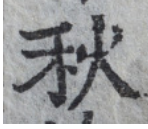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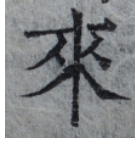
교정쇄	책판	완성본	수정내용
			탈획 보충
『訥齋集』 卷1 9A10-18			
			도각 보충
『訥齋集』 卷3 1B3-7			

<그림 6> 「눌재집」의 탈획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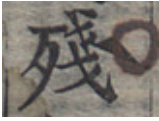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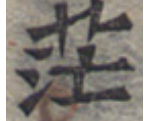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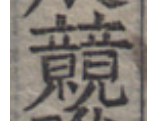
4.3.4 연획 · 늘어진 획 수정

불필요하게 추가된 획과 늘어진 획은 획의 삭제와 길이 조절로 비교적 간단하게 수정된다. 이 또한 각수의 자형에 대한 이해 수준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2) 금속이나 도자기, 목재 따위의 표면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서 그 속에 같은 모양의 금, 은, 보석, 뼈, 자개 따위를 박아 넣는 공예 기법으로, 이런 방식을 책판의 자획 수정에 적용하였다.

교정쇄	책판	완성본	수정내용
			추가된 획 삭제
「訥齋集」卷3 제6A8-8			
			마지막 빼침 획 삭제
「訥齋集」卷1 10A9-14			
			늘어진 획 수정
「訥齋集」卷5 41A7-16			

<그림 7> 「눌재집」의 연획·늘어진 획 수정

					
本集(殘)	本集(茫)	本集(械)	本集(名)	附集(拔)	本集(競)

<그림 8> 기타 「눌재집」의 衍劃 글자

4.3.5 내용 추가·삭제

내용의 추가와 삭제는 책판 교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수정이다. 1자를 추가할 경우 本集 卷5의 1A2 1A2-15~17에 ‘六峯編’에 弟자를 추가하여 ‘第六峯編’으로 하는 경우처럼 아래위에 충분한 여백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글자가 꼭 찬 행에 字를 추가할 경우는 몇 글자를 더 도려내고, 그 공간에 한 글자를 더 추가한 자본을 써서 붙여, 다시 새겨 끼워 넣었다. 여러 행에 해당하는 장문의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경우는 비교적 책판의 많은 면적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行補刻, 面補刻으로 진행되며, 이후 문장이 밀려나야 한다면 한 면 또는 이후 판을 전부 다시 새겨야 한다. 한 예로 「권수별편」 교정쇄 상단에는 추가해야 할 내용 ‘朴文簡公~監役’을 묵서로 기록하였고, 완성된 책판에는 그 내용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내용은 다섯 행이며,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 ‘傳敎~口傳擬八’ 네 행은 다섯 행씩 뒤로 이동되었다. 권수별편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2면의

마지막 3행은 행보각으로 수정하고, 이후 4장까지 총 3장은 모두 새로 판각하였다. 또 附集 권1의 1~2장은 판 전체에 내용의 추가와 삭제가 많아 다시 판각하였다. 원고 교정의 소홀이 가져온 결과로 판각 이전의 원고 교정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눌재집』의 교정쇄본에는 필사된 채로 묶여진 것이 5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판각이 누락되었거나 판각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판각하도록 한 것이다.

<표 3> 「눌재집」의 내용 추가·삭제 수정

권차	위 치	교정쇄본	완성본	교정내용
凡例			訥齋先生集凡例	내용 추가
卷首	2A~3B	筆寫	御製賜祭文 ~ 卷首	내용 추가
卷首 別編	1A1	訥齋先生集附錄卷首	訥齋先生集卷首別編	내용 수정
	1~4장 판심	訥齋集附錄卷首	訥齋集卷首別編	내용 수정
	1B7-1~6	傳教(正宗己未溫/陵幸行時)	傳教(正宗己未)	내용 삭제
	1B8~2A2		朴文簡公~(監役)	내용 추가
	2A2-12~18	賜祭文(英宗~致祭)	賜祭文(英宗~致祭)撰進人未詳	내용 추가
	3B5-15	抄	節錄	내용 수정
	4A1-2,3	丙申	己未	내용 수정
	4A2-5	抄	節錄	내용 수정
	4A1-2~3	丙申	己未	내용 수정
	4B10	訥齋先生集附錄編首	訥齋先生集卷首別編	내용 수정
序	1A~1B	筆寫	訥齋先生集序	내용 추가
本集 卷1	10A10	奉酬石川韻	奉酬石川(林億齡/大樹)韻	내용 추가
	10B10-14~16	云	云(適菴曹/叔奮仲)	내용 추가
	13B10	韻	韻(亨仲尹/橘亭?)	내용 추가
	16B3	詮次兒問答奉酬適菴婦言篇五首	詮次兒問答奉酬適菴婦言篇	내용 삭제
本集 卷2	1A2-12~14	六峯編	弟六峯編	글자 추가 (행내 위치 이동)
本集 卷3	1A2-15~17	六峯編	弟六峯編	글자 추가
	3A~4B	筆寫	牆低~八菊花枯	내용 추가
	5A8	和高宜寧	和高宜寧(雲字彥龍/號霞川)	내용 추가
	10B-5	黃叅軍無盡亭次	黃叅軍無盡亭次或人韻	내용 추가
	10B	中原北津別舍弟歸關東幕(亭疑/停)	中原北津別舍弟歸關東幕	내용 삭제
	11A2-9	意幾時同	意幾時同(亭疑/停)	내용 추가
本集 卷4	1A2-15~17	筆寫	第六峯編	내용 추가
	3A2	終雨雪晴携雲卿甫同登	終雨雪晴携雲卿甫同登(雲卿鄭湖/陰士龍)	내용 추가
	4A1	寄綿州柳使君沃	寄綿州柳使君沃(啓彥號/石軒)	내용 추가
	6A2	奉酬元冲和舍弟韻	奉酬元冲和舍弟韻(元冲金/冲菴淨)	내용 추가
	22A4	寄君美	寄君美(洪彥/邦)	내용 추가
	25A~26B	筆寫	先文~爲目	내용 추가
	30A3	詩以答之	詩以答之(世弼字公/碩號十清)	내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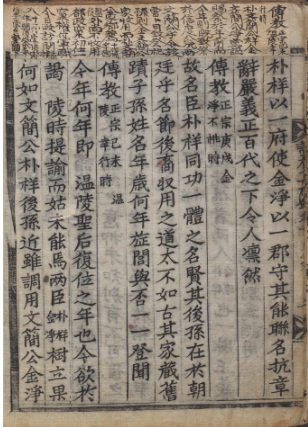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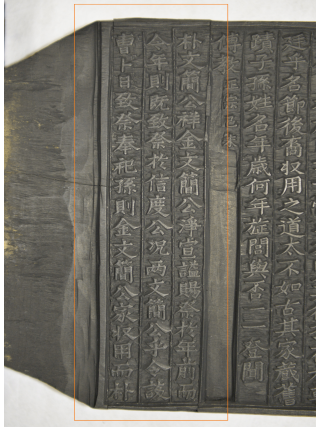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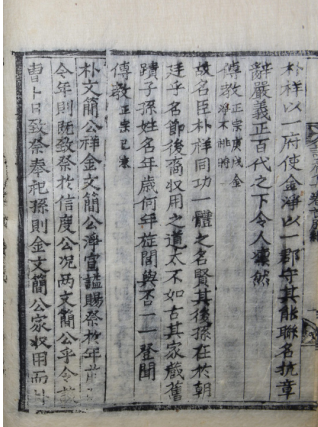
권차	위 치	교정쇄본	완성본	교정내용
本集 卷5	1A2-15~17	六峯編	弟六峯編	글자 추가
	11B4	天疑/无		내용 삭제(두주)
	11B7	其韻	其韻(長吉李灘/叟延慶)	내용 추가
	30B9	養母	養母(次野李/陰崖紆)	내용 추가
	42A1-3~6	次南止亭	用次或人	내용 수정
	44A10	江上贈韓元之	江上贈韓元之(效元)	내용 추가
本集 卷6	5B5	詠橘排律十韻	詠橘	내용 삭제
本集 卷7	1A2	六峯編	弟六峯編	글자 추가 (행내 위치 이동)
續集 卷1	25B8	金句從		내용 삭제(두주)
	35B1	次祖師韻演爲三首	次祖師韻	내용 삭제
續集 卷2	43B6	題逍遙堂排律四十韻(逍遙□/□堂號)	題逍遙堂排律四十韻	내용 삭제
	63A8	逢孝直(趙靜菴/光祖)	逢孝直(趙靜菴/光祖)喪	글자 삭제
續集 卷4	2A10-13~17	四韻四首云	四韻	내용 삭제
	13A9	定疑/正		내용 삭제(두주)
附錄 卷2	10A2-13~18	陶菴李 締撰		내용 삭제
	11A9-9~12	賜祭錄後	贈官賜祭	내용 수정
	11B7-2~12A1-3	按海東淵源錄~印云		내용 변경
	11B7-2~12A1-18		資憲大夫~俞拓基篆	
	12B4-16	告	告(尤菴/逸書)	내용 추가
	18B2	朴訥齋~亡命之由		내용 삭제
	18B5(수정후)		朴訥齋~亡命之由	내용 추가
	18B3~4	(己卯禍~至到此)		내용 삭제(소자쌍행)
	18B3~4(수정후)		十三歲~國器(栗谷~行狀)	내용 추가
	18B7-15~17	(八賢傳/己卯錄)	(八賢傳)	내용 삭제
附集 卷1	1A1~2B2	1A1~2B2	1A1~2B2	추가·삭제 많음 (1,2장 새로 새김)
	4B2		石軒六/峯一號	내용 추가(두주)
	5A6-12~13	月與		내용 삭제
	26B8	判校金彦琚撰	金彦琚撰	내용 삭제
	28B1~2-5	通訓大夫前承文院判校金彦琚/撰		내용 삭제
附集 卷2	1A, B	筆寫	訥齋先生附集~究一	내용 추가

※ ()는 小字, /는 행 바꿈, 부집 권1의 1,2판의 내용은 미 수록하였음.

① 장문 추가

장문의 필사 내용이 추가된 경우는 권수 2A~3B, 권수별편 1B8~2A2, 序文, 본집 권3 3A~4B, 본집 권4 25A~26B, 부집 권2 1A~B이다. 이중 권수별편에 추가된 내용은 교정쇄의 해당 장의 난상에 묵서되어 있었던 내용이다. 5행에 해당하는 분량의 내용추가로 이후 문장이 모두 밀려나 나머지 판을 모두 다시 새겼다. 나머지 5건은 교정쇄본에 책판 한판 분량의 내용을 별지에 필사하여

추가 되었던 것이 때문에 다른 책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교정쇄	책판	완성본
		
『訥齋集』卷首別編 1B8	『訥齋集』卷首別編 1B8	『訥齋集』卷首別編 1B8

<그림 9> 「눌재집」의 장문 내용 추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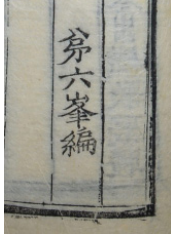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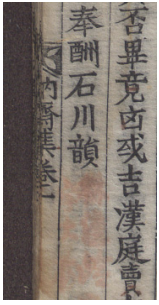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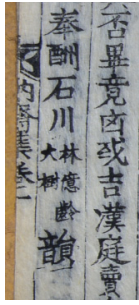
② 단문 추가·삭제

한 글자의 추가는 본집의 각 권수면에 편집자가 저자 눌재의 동생임을 표기하기 위해 ‘弟’자를 추가하여 모두 ‘第六峯編’으로 수정하였고, 부집 권1에 15A2-9번째에 해당하는 부분의 판각을 보류하여 묵등으로 남겨 두었다가 이후에 波자를 새겼다. 묵등은 일반적으로 闕文의 원인으로 발생되고,³³⁾ 확정되지 않은 문자 등의 사유로 기인하는데 『눌재집』에서는 1건이 확인된다.

단문 추가는 20건 확인된다. 이 경우는 본집 권3의 5A8에 ‘和高宜寧’ 아래에 소자쌍행으로 ‘雲字彥龍/號霞川’ 7자가 추가된 것처럼, 작품 제목 아래 또는 작품 끝에 쌍행의 소자 주석으로 추가되는 내용이 많고, 수정은 行內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연각하여 매목하였다.

책판의 欄上에 두주 형식으로 추가되는 내용은 적당한 크기의 목재를 별도로 제작하여 내용을 새긴 후 책판 위쪽에 고정하여 돌출된 형태를 보이는데, 부집 권1의 4B2의 난상 ‘石軒六/峯一號’를 이런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두주로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내용은 교정 시 확정하지 못했던 글자에 대한 의문이나 부연설명에 해당한다.

33)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1992),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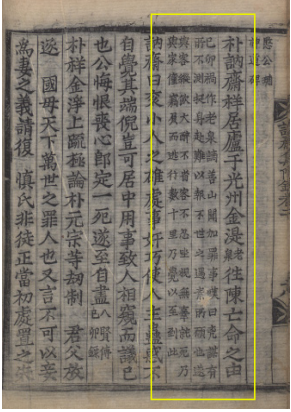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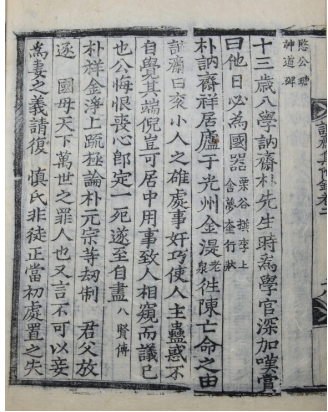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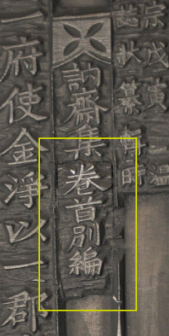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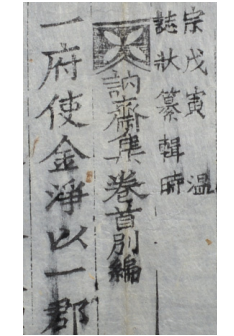
교정쇄	책판	완성본	수정내용
			글자추가 및 4자 연각 보입
『訥齋集』 卷3 1A2			
			난상 두주 추가 (石軒六/峯一號)
『訥齋集』 附集 卷1 4B2			
			단문 추가 (林億齡/大樹)
『訥齋集』 卷1 10A10			

<그림 10> 「눌재집」의 단문 추가·삭제 사례

③ 내용 수정

내용 수정은 기존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경우로 적게는 두 자 많게는 3행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본집 권5의 42A1-3~6에 ‘次南止亭’을 ‘用次或人’으로 수정하였고, 부록 권2의 11A9-9~12에 ‘賜祭錄後’를 ‘贈官賜祭’로 수정하였는데, 이 경우도 연각하여 삽입하였다.

부록 권2의 11B7~12A1에 ‘按海東淵源錄~印云’ 4행은 ‘資憲大夫~兪拓基篆’으로 수정되었으며, 부록 권2의 18B3~4의 소자쌍행 ‘己卯禍~至到此’ 2행이 삭제되고 그 자리에 十三歲~國器(栗谷~行狀) 2행의 다른 내용이 삽입되었다. 이런 경우는 해당부분을 깎아내고 행보각으로 수정이 이루어진다. 다행히 변경되는 내용의 행수가 같아 이후의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해결될 수 있었다.

교정쇄	책판	완성본
		
附錄 卷2 18B2~4	附錄 卷2 18B2~4	附錄 卷2 18B2~4
		
『訥齋集』 卷5 42A1-3~6	『訥齋集』 卷5 42A1-3~6	『訥齋集』 卷5 42A1-3~6
		
『訥齋集』 卷首別編 판심	『訥齋集』 卷首別編 판심	『訥齋集』 卷首別編 판심

<그림 11> 「눌재집」의 내용 수정 사례

5.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후기 개인문집 간행 시 책판교정에 대하여 「눌재집」을 한 사례로 살펴보았다. 「눌재집」은 1547년 錦山에서 초간 후 세 차례 더 중간되었다. 그 중 1843년에 광주에서 간행된 四刊本은 교정쇄 6책이 온전히 남아 있고, 또 교정쇄의 교정지시에 따라 수정한 책판도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 남아 있어서 문집 간행 시 인쇄교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눌재집」 교정쇄에는 초각 후 교정 지시한 내용이 꼼꼼히 표시되어 있으며, 책판 교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책판 교정은 각수의 기술적 요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판각 이전 원고 교정의 소홀, 즉 편집과 내용 교정의 미흡과 상판용 등재본의 淨書 중에 발생하는 착오가 판각에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각수는 판각술뿐만 아니라 문자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겸비하여야 판각의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아울러 서체미도 살릴 수 있다. 자형에 대한 이해 부족은 곧 訛形의 글자, 획 모양의 오류, 탈획 등 많은 부분에서 오각을 발생시키게 된다.

「눌재집」의 교정쇄와 완성본, 책판을 대조하여 유형별 교정현황을 살펴보면, 각수의 판각 실수로 빚어진 자획에 대한 교정이 전체의 87% 이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획에 대한 수정은 탈획, 연획, 늘어진 획, 가는 획, 짧은 획, 訛形字 등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각수의 기술적 능력에 따라 그 정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눌재집」 본집에는 642건의 자획에 대한 교정이 있었으나 속집에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아 서로 다른 각수가 판각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눌재집」에는 본문에서 49자의 오자를 수정하였으나 본문에서 한 글자를 완전히 다시 새겨 넣은 경우는 鈎자를 勻자로 수정한 1건만 확인된다. 자형에 형태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면 최대한 그 획을 살리고 나머지 획을 수정하여 글자를 완성하였다. 이로 인해 인쇄된 글자의 모양은 다소 엉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자획의 수정은 일반적으로 탈획 부분에 구멍을 뚫어 다듬은 획을 삽입한 후 획 높이와 연결되는 획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다듬어 완성하였다. 오자는 해당 글자를 口자로 파낸 후 다듬은 새긴 글자를 삽입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보다 더 유용한 방법으로 나무를 미리 삽입하여 단단히 고정시켜 수평을 맞추고 자본을 붙이거나 한지를 붙여 글자를 쓴 후 새기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의 교정 소홀로 인해 책판을 교정은 그 정도에 따라 行內에서 연각활자 형태로 보각삽입하여 수정하고, 많은 내용의 추가와 삭제는 판각된 이후 내용에까지 영향을 주어 이후 판을 다시 새겨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책판 교정은 간행물의 내용을 점검하고, 형태적 품질을 결정하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철저한 교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해 교정자와 각수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 하나의 완전한 문집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己卯錄補遺』 朴祥傳.

『鏤板考』.

『正祖實錄』.

『訥齋集』.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대구: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남권희. “古版畫博物館 所藏 五倫行實圖 木板의 飜刻 刊行에 대한 研究.” 『한국의 고판화』.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2005.

남권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의 판각 형태와 책판관련 요소 I.” 『동아시아 책판의 가치와 의미』.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2.

박은숙. “『눌재집』의 판본과 발굴 작품.” 『한문학론집』 제8집(1990).

손계영. “地方官의 先祖 文集 刊行.” 『영남학』 제15호(2009).

汪耀楠 著. 朴在健 譯. 『文字校勘 그리고 注釋의 異名과 釋名』. 대구: 태일사, 2001.

이복규. “우리의 옛 문장부호와 교정부호.” 『고문서연구』 제9호(1996). 457-481.

임덕선. 『조선후기 문집의 교수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장원연. “조선시대 교정기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0.

장원연. “조선시대 서책의 교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2호(2009). 521-554.

장인진. 『영남 문집의 출판과 문헌학적 양상』.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2011.

천혜봉. 『한국 서지학』. 민음사, 1992.

한국국학진흥원.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한국국학진흥원, 2007.